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음 2월 26일) 제20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화사한 봄의 정취 물씬... 고인돌유적지에 노랗게 핀 유채꽃



10일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지 2코스 앞 문화재 보호구역 약 1만㎡에 유채꽃이 만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고 있다. 이 유채꽃은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지의 경관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유채꽃 종자를 파종한 것이다.

## 도,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전주·군산·익산 시내버스·관용차 우선 적용  
송하진 지사,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방문  
"2023년까지 902억 투자 216대 보급키로"

전북도는 10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 시군 관용차량과 도심 내 주행거리가 많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3개 지역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사진 5면>

친환경 상용차로 꼽히는 전기버스 도입에 따라 대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도내 자동차 관련 완성차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버스업계 경비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이번 친환경 전기버스를 본격 도입하게 되는 것은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목표로 전기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술실증 등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조성 사업을 앞당기는 등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문정훈 공장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차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전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 902억을 투자해 모두 216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대신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전북도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고,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되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현대자동차가 도내 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청와대·정부·국회 “새만금 지원” 한목소리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모두 모여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새만금사업 관련 모든 관계기관의 장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다.

이 포럼은 지난 2월 새만금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춘석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전북지역의 김관영·김광수·김종희·안호영·유성엽·이용호·이춘석·정동영·정운천·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다.

### '사업 활성화 정책포럼'서

정세균 의장 "아끼지 않을 것"

송재호 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 성과 내도록 할 것"

김현미 장관 "공공주도형 성공사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라면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위

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새만금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 역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새만금사업이 타 지역에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자로는 ▲양승승 서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임민영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참여해 새만금사업의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임민영 단장은 현재 새만금 관

련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항만 선석 공사와 관련하여 해수부의 재정전환을 촉구하는 요지의 토론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는 당장 다음 달에 해수부가 대략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민자 공모를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재정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민자 공모도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5면 - 전북안전 매뉴얼 앱 보급

## '일자리 서비스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  
7월부터 전국 16개 지사에서 109개 지사로 확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노후준비서비스에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노후준비 상담고객에게 가입 이력과 연봉 등 희망사항을 반영한 적합한 사업장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다.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국민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사에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제공하는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일자리 추천서비스가 전국 109개 지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장 구직정보에 민간사이트의 채용정보를 추가, 시범기간 동안 누적된 상담 결과를 분석해 일자리 추천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일자리추천서비스가 국민의 활력 있는 노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수호 기자

扶來 부안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 제6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일정표

| 대회순서        | 진행시간        | 대회장소       |
|-------------|-------------|------------|
| 접수확인 및 순서추첨 | 08:30~09:00 |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 경연          | 09:00~12:00 |            |
| 점심식사        | 12:00~13:00 |            |
| 경연          | 13:00~15:00 |            |
| 시상식 및 폐회    | 15:00       |            |

일시 : 2018. 5. 6(일) 09:00 ~ 15:00  
장소 :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 / 주관 : 부안농악보존회      • 후원 : 대한민국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